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수도권 사업설명회 개최

50여개 수도권 중소 중견기업 참석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수도권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 이후 지원사업에 대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수도권 사업설명회'가 4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경남권 설명회(2021. 3. 30)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용성전기, 태양기술개발 등 50여 개의 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이 참석하였다.

본 설명회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자력 유망분야별 전문가 발표로 진행되었다. 유망분야별 발표는 원전해체 시장 및 기술 소개와 방사선 분야 기술현황 소개로 진행되었다.

설명회 후 개별 상담장을 마련하여 지원사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 상담을 진행했으며, 기업 관계자들은 생태계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은 산업 생태계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활력 회복과 중소·중견기업들이 연관 산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 중이다.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nisp.kr)를 통해 살펴볼 수 있고, 사업설명회는 추후 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KIIF**

「퇴직자·재직자 경력전환교육」 원전해체 기본과정 시행

원전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의 경력전환 지원을 위한 원전해체 기본과정 시행



교육 1일차 첫 수업으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소개가 진행되었다. 이번 원전해체 기본과정 교육은 32명이 수료하였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서울 SETEC에서 「퇴직자·재직자 경력전환교육」 원전해체 기본과정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생 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당국의 방역지침을 엄수하여 시행했다.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이번 교육은 원자력분야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원전기업 재직자와 퇴직자 32명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분야로의 경력전환 지원을 위해 기본과정으로 꾸러졌다.

교육 1일차에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 국내외 원전해체 시장 동향, 원전해체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이튿날부터 3일간 원전해체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해체 작업자 안전성 평가 기술, 해체 비용 및 사업관리기술에 대한 강의에 이어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특성평가, 원격제어, 절단/철거 등 해체사업 분야별 기술교육이 진행됐다. 그리고 교육 마지막 날에는 코로나19로 전면 금지된 해체 현장방문을 대체하여 영상물을 활용한 고리 1호기 해체 현장 간접 체험과 고리 1호기 해체 준비현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위해 발간한 '제염해체기술지침서'와 강사가 준비한 교안을 교재로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생의 이해를 도왔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퇴직자 및 재직자의 경력전환을 위해 품질/안전, 프로젝트관리, 용접/재료, 방사선 분야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전해체 분야 교육(기본과정)은 매년 상·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다. **KIIF**

〈4월호〉 바로 잡습니다.

95쪽	2단 26번째 줄	지휘자가 → 지휘자가
97쪽	1단 14번째 줄	수차 → 수차례
87쪽	1단 첫 번째 그림	변경된 그림은 한국원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